

#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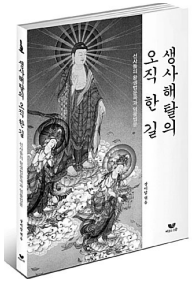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9.24~2015.9.30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용림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6	정신과 의사의 제행으로 보는 새터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2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모든 습마다, 나	탁남현/김성희	아이넷북스
3	무아유희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8	신심명(물류개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4	시교려운원승이잠재우기	에번(보리매)각인 나무염의자		9	인생의약상자	매산/원성명	담앤북스
5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유원스님/김현준	효림	10	선한마음(나를바꾸고세상을바꾼다)	오경탄/레도제	지영사



##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요, 마음이 곧 정도이다”



생사 해탈의 오직 한길

상이암 엮음  
비율과 소통 펴냄  
1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임종을 당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큰 고통이 일어날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 때에 만용을 부리다가 길이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후회 막급의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이 이미 다 조사(祖師)이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왕생하는 길을 간절히 권했거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왕생을 부정하겠는가?”

서산대사(休靜, 1520~1604년)는 <선가귀감>서 염불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일부 선승들을 경책하는 법문을 많이 했다. 대사의 고구정명한 이런 법문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더욱 절실한 당부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고승과 선사들 염불 법문 수록

염불정의와 공덕 상세히 설명

“수시로 독송하면 지혜공덕 받아”

이 책은 역대 고승과 선사들의 가사체 왕생법문과 염불법문을 수록해 염불행자는 물론 참선,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방편을 닦는 불자들도 염불의 깊은 뜻을 터득하여 이생에 윤희를 벗어나 불퇴전지(不退轉地)에 오르는 기연(機緣)을 만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저자는 “한국불교가 조계종을 중심으로 선종(禪宗)을 표방하다 보니 염불 간

경 주력 등 화두참선 이외의 수행방편은 홀대 받기에 이르른 것이 사실”이라며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지나치게 표방한 가풍은 경전과 조사어록을 소홀히 하다보니 스스로의 수행(自燈明)을 비취볼 법등명(法燈明)이 외면당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결국은 선(禪)과 교(敎), 이(理)와 사(事)가 분리된 신행형태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자는 “이런 현상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날 경전도 공부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한국불교의 위기에 이르러 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한 원인이 된 것 같다”며 “하지만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위태로운 오늘날에도 묵묵히 염불(念佛)하며 간경(看經)하는 신심 깊은 불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불교를 중흥시킬 주역이 틀림없다”며 “수시로 독송하고 외우면 지혜와 공덕을 함께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역은이 상이암(上耳庵)은?

전북 임실 상이암은 조계종 제 24교구 본사인 선운사 말사이다. 875년(현강왕 1) 도선국사가 창건했고, 1394년(태조 3) 각여 선사가 중수했다. 태조 이성계가 등극 전 이곳서 치성을 드리니 하늘서 “앞으로 왕이 되리라.”는 소리가 들렸다해 절 이름을 상이암으로 고쳤다고 한다. 1894년 동학혁명으로 불탄 것을 1909년 대원 선사가 중건한 뒤 의병장 이석용이 이 절을 근거지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왜병들에 의해 다시 소실됐다 그 뒤 중건됐지만, 6·25 때 다시 소각됐다. 현재의 전각은 1958년 11월 상이암 재건위원들이 세웠다. 유물로는 혜월(慧月)과 두곡(杜谷)의 부도 2기가 전북문화재자료 제124호와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로 각각 지정됐다.

### 책속의 밑줄 긋기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를 마음속에 품어서 늘 잃지 말아야 한다. 생각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病苦)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 없으면 손가락 땀길 수도도 없이 서방극락 세계에 가느니라.(육조혜능대사)”

“서산대사께서는 선종의 대중장이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 법문을 윤희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여 잊지 말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푹푹히 불러 산란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합치되는 것이 염불(念佛)이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서산대사를 비롯한 역대 고승들이 말법시대에 가장 쉽고 빠른 생사해탈의 길로 천명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살아서는 안심(安心)과 행복을 얻고, 죽어서는 왕생극락하여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고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 “살다보면 기도나 염불 이외에 할 것 없는 시간 무수히 찾아와”



불보살 영험이야기

이수경 편저  
운주사 펴냄  
1만 5천원

불교는 흔히 어떤 절대자나 신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를 깨닫는 철저한 자기 수행의 종교라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할까? 불교에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바람이나 기도가 없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이다.

불교가 자기 안에 내재된 불성을 계발해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인 건 분명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이미 깨달음에 이른 불보살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당연하게 인정한다.

깨달음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이나 바라는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때가 무수히 많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재난이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학업이나 사업을 성취하고 싶을 때면 불보살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인자상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간절한 기도로 불보살님들의 기도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불교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기도로써 불보살의 영험을 체험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책은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전해오는 대표적인 영험담과 수행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아울러, 옛 스님들과 선사들의 일화들을 모아 한 장(9장)을 엮었는데, 이는 영험담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영험담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논리를 뛰어 넘는 이야기라는 공통점과 함께, 영험담류와 구별되는 또다른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 아홉 쪽지로 구성된 이 책의 전반부는 여러 보살과 부처님에게 기도하여 기뻐하는 일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먼저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시작으로 문수, 보현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나한 이야기 등으로 분류 소개했으며, 후반부는 윤희와 인과응보에 관한 여러 교훈적인 이야기, 그리고 법화경 신행 이야기와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돈에 얽힌 고사들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궁극 목적에 해당

하는 ‘대도무문,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역사 속에서 수행 경지가 높은 도인들의 높은 수행력과 신기한 영험들을 수록함으로써 불보살에게 기도하는 마지막 목적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넘어서 제시한다.

이 책의 서문서 저자는 말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염불이나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살다보면 기도나 염불 이외에는 할 것이 전혀 없어지는 실로 무력하기 그지없는 시간이 무수히 찾아옵니다. ... 불교공부와 염불을 병행하십시오. 염불이 지극해지고 지극해지면 드디어는 부사의하고 불가해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불보살 가피 이적 소개

한중일 대표적 영험담

선사들 수행일화도 엮어

법화경 관련 신행이야기도

저자의 말대로 세상일이란 수행이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될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듯 삶이 어렵고 소원 성취를 원할 때, 수행이 더 깊어질지 못할 때 불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원 성취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불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과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편저자 이수경은?

1948년 경주서 태어났다. 20살 무렵의 어느 날 새벽에 부친으로부터 부처님의 정각 이야기를 듣고 발심했다. 이후 <금강경> 공부를 시작으로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선지식들로부터 참학한 후에, 월산 스님으로부터 참선을 지도받고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화두공부의 문을 열다> <화두의 융합과 초점> <화두선 요결> <무문관의 새로운 해석>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실용의식 : 천도제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 수 강 료 : 월 10만원
-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 ◆ 문 의 처 : 010-5065-5690

### 근 화 학 당

- ◆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 ◆ 강 사 : 추송 ◆ 수강료 : 월 10만원
- ◆ 문 의 처 : 010-8948-7948
-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 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易學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분	요일	시간	개강
초급(주간)	매주(火)	15:00 ~ 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火)	19:00 ~ 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水)	19:00 ~ 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木)	10:00 ~ 12:00	10월 22일

- 기간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출구(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명리진로적성 상담사/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